



이곳, 남해에서 심포를 찍다.

지금 여기 愛 남해#



20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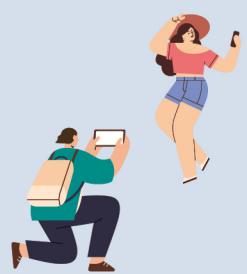
지금 여기 **愛** 남해#

남해로의 관문	4
독일마을	5
이순신바다공원	6
금산보리암	7
다랭이마을	8
설리스카이워크	9
상주은모래비치	10
국립남해편백자연휴양림	11
섬이정원	12
남해각	13
남해바래길	14
그 밖의 관광지	15
남해의 축제	18
남해로 오는 길	19



보물섬 남해

남해군은 한반도 남해 연안의 중앙에 위치한 남해도와 창선도 두 큰 섬을 비롯한 유인도 5개와 무인도 73개로 구성되어 있으며, 인구는 4만여명이다. 본섬인 남해도는 제주도, 거제도, 진도, 강화도에 이어 대한민국에서 다섯 번째로 큰 섬이다. 겨울은 따뜻하고 여름은 시원한 여행하기 딱 좋은 기후 조건과 웅기종기 모인 섬, 크고 작은 산, 아름다운 해안선 등 수려한 자연경관 그리고 남해 곳곳에 흥미로운 이야기를 간직한 다양한 매력의 보물 같은 관광명소가 많아 "보물섬 남해"로 불린다.





남해로의 관문
어서오시다!



1 남해대교 & 노량대교

1973년 개통된 남해대교는 국내 최초의 현수교로 육지와 단절되어 있던 남해도를 처음으로 이어준 교량이며 우리나라에서 가장 아름다운 다리로 일컬어지고 있다.

노량대교는 남해대교를 대체할 교량으로 2018년에 개통되었다. 세계 최초로 경사 주탑과 3차원 케이블 방식의 첨단 기술이 적용되었다.

2 창선-삼천포대교

총연장 3.4km에 이르는 창선-삼천포대교는 한국 최초로 섬과 섬을 연결하는 교량이다. 남해 창선도와 삼천포 사이 3개의 섬을 연결하는 5개의 교량이 다리박물관을 방불케 하는 장관을 연출한다.



3 남해-여수간 해저터널(예정)

2031년 개통 예정인 남해-여수간 해저터널을 통해 남해는 영호남을 잇는 교통허브이자 남해안 관광의 플랫폼이 될 것이다.



한국관광
100년
지점

1

여권없이 떠나는 독일여행
독일마을



독일마을은 과거 독일에서 열심히 일하며 국가경제발전에 큰 기여를 한 교포들이 노후에 귀국 후 정착한 곳이다. 실제 독일에서 거주하던 마을을 재현하는 것을 목표로 '한국 속 작은 독일'을 만들어냈다. 2003년 완공 이후 독일마을의 하얀벽과 오렌지빛 지붕은 남해를 상징하는 풍경이 되었고, 바다가 보이는 풍경에 잘 가꾸어진 정원과 독일식 식당, 독일 맥주집, 독일 공방 등이 이국적인 느낌을 더해준다. 매년 10월경 독일마을 광장에서 열리는 독일마을 맥주축제는 전국에서도 손꼽히는 축제이다. 남해파독전시관에서는 파독광부·간호사의 삶의 흔적을 느낄 수 있다.

함께
가볼만한
곳

원예예술촌



원예예술촌은 20여 명의 원예인들이 모여 이룬 마을로, 아름답고 개성적인 21개소의 주택과 정원이 나라별 이미지와 테마를 살려 조성되어 집집마다 개성 넘치는 원예작품들을 구경할 수 있다. 조각 정원, 토피어리 정원 등 세계의 다양한 정원을 감상하며 느리게 산책하는 시간을 가져 볼 수 있다.



2

나의 죽음을 적에게 알리지 마라!

이순신바다공원



이순신 장군의 마지막 절규가 맴도는 곳, 이순신바다공원은 노랑해전에서 순국한 이순신 장군과 수군들을 기리기 위해 건립되었다. 사적 232호로 지정된 남해 관음포 이충무공 유적 외에도 이순신영상관, 호국광장, 관음포 광장 등이 있어 역사에 관심이 많은 사람이라면 한 번쯤 들려야 할 성지이자 역사의 현장이다. 여유를 느낄 수 있는 큰 광장과 분수대 등을 갖추고 있어 아이들을 데리고 가볍게 산책하기에도 좋다. 이순신영상관에서 임진왜란에 관한 다양한 전시와 노랑해전에 관한 입체영상을 관람할 수 있고 리더십체험관에서는 활쓰기와 투호 등 전통민속놀이도 즐길 수 있다.

함께
가볼만한
곳

유배문학관



국내 최초 및 최대 규모의 유배 문학관으로, 유배와 유배문학에 관한 종합적인 정보습득을 위한 공간이다. 조선 시대 유배지였던 남해의 문화와 역사가 가득 차 있다. 주제별 전시관을 통해 유배 문학에 대한 체계적인 이해와 다양한 체험전시, 학습프로그램을 통해 관람객이 흥미를 느낄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3

어디서도 볼 수 없는 장엄한 일출

금산보리암



온갖 전설을 담은 기암괴석이 금강산을 빼어 닮았다 하여 소금강 혹은 남해 금강이라 불린다. 고려말 태조 이성계가 이곳 금산에서 백일기도를 한 뒤 조선을 건국하게 된다. 또한 신라시대 원효대사가 세웠다는 보리암은 금산의 기암절벽 영봉에 자리 잡고 있는 우리나라 3대 관음 기도처 중 하나이다. 보리암의 관음보살에게 기도를 하면 한 가지 소원은 꼭 들어준다는 전설이 있다. 대한민국 최고의 일출 명소이지만, 금산 일출은 3년 동안 덕을 쌓아야 볼 수 있다 하니 날씨 컨디션도 잘 살펴야 한다.

함께
가볼만한
곳

용문사



언제라도 좋지만 수국이 피는 계절 용문사는 무척 아름답다. 해발 650m 호구산 자락에 자리 잡은 남해에서 가장 크고 오래된 사찰이자 가장 많은 문화재를 보유한 절이다. 몸과 마음이 지친 이들을 위해 휴식형 템플스테이 프로그램을 운영 중에 있다.

4

CNN이 선정한 한국에서 꼭 가봐야 할 곳 3위

다랭이마을



푸른 바다를 접한 산비탈을 일군 좁고 긴 계단 형태의 다랭이 논(명승 제15호)이 있는 마을로 섬 특유의 정취를 느끼게 하며 또 다른 자랑거리인 암수바위가 있다. 흡사 페루의 고산지대 모습을 연상케 하는 다랭이마을의 그림 같은 풍경은, 사실 아픔에서 출발했다. 경사가 심하여 눈을 일굴 수가 없어, 비탈에 석축을 쌓아 108층이 넘는 계단식 논을 만들어낸 것이다. 경사진 길을 따라 마을로 내려가면 아담한 건물 사이로 꼬불꼬불한 골목길이 이어지고 바닷물이 칠랑거리는 해안가 산책로가 있다.



함께
가볼만한
곳

장항&서상숲



그냥 보기에 특별하거나 화려하지 않지만 바닷가의 마을숲은 마을 사람들의 심터이자 바람과 파도를 막는 방풍림의 역할을 하는 소중한 곳이다. 마을숲과 바다를 풍경삼아 핫플이 된 장항숲과 서상숲에는 다채로운 매력의 상점들이 생겨났고 예쁜 사진을 남길 수 있는 핫플로 입소문이 나고 있다.



5

바다 위를 걷다!

설리스카이워크



다도해의 매력을 느낄 수 있는 전망대로 설리해수욕장 뒤편 언덕에서 웅장한 자태를 뽐낸다. 전망대 자체의 형태와 규모가 어마어마해 저 멀리 상주 쪽에서도 눈에 띌 정도이다. 일명 '하늘 그네'라 불리는 스카이워크 그네는 높이 38m로 세계인이 사랑하는 휴양지인 인도네시아 발리의 명물, '발리섬의 그네'를 모티브로 제작되어 하늘과 맞닿고 발아래로는 바다로 풍덩 빠져 들것만 같은 극강의 아찔함을 준다. 아간에는 스카이워크 전체에서 경관조명을 감상할 수 있고 아름다운 전망대 어느 곳에서나 멋진 일몰 사진을 남길 수 있다. 인기드라마 '여신강림'의 촬영장으로 유명하다.

함께
가볼만한
곳

남해박물관전망대



대한민국 최남단 남해를 아름답게 비추는 등대 모습을 형상화한 건축물로 내부에서 바라보는 바다의 모습은 초호화 고급 크루즈를 탄 듯한, 국내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360도 파노라마 바다 조망을 자랑하고 있다. 유리로 된 하늘길을 직접 걸어보고, 절벽 위 수려한 남해바다 조망을 한눈에 내려다 볼 수 있다.

6

고운 은빛 모래에 추억을 담그다.
상주는모래비치



눈 앞에 펼쳐진 작은 섬들은 바다를 호수 모양으로 감싸고 있으며 파도가 잔잔하고 수온도 따뜻하여 아이를 동반한 가족 단위의 피서지로 일품이다. 은가루처럼 밝게 반짝이는 백사장은 비단과 같은 부드러운 감촉을 느끼게 하고, 바닷물은 모래알을 헤아릴 수 있을 만큼 깨끗하다. 비단결 같은 모래는 맨발로 걸을 때 발가락 사이로 흘러 간지럼을 태운다. 해변 뒤편에는 울창한 소나무 숲이 있어 운치를 더한다. 숲 뒤로 야영장이 있고, 맛집과 다양한 매력의 카페들 역시 즐지어 자리하고 있어 가족뿐 아니라 친구 연인들에게도 인기 만점인 해변이다.

7

치유와 힐링의 시간입니다.
국립남해편백자연휴양림



섬 속의 육지라 불리는 삼동면 내산마을에 위치한 편백자연휴양림은 1960년대 조림된 피톤치드 가득한 편백나무와 삼나무가 울창한 숲을 이루고 있는 곳이다. 빼곡한 숲길을 거닐기만 해도 마음의 위안을 받게 되는 휴식과 힐링을 즐길 수 있는 최적의 장소이다. 자연 속에서 쉬어갈 수 있는 숙박시설과 캠핑장 시설이 갖추어져 있고 숲 해설과 다양한 체험프로그램이 예약제로 운영되고 있다.

함께
가볼만한
곳 **송정솔바람해변**



남해에서 두번째로 큰 해수욕장으로 바위로 이루어진 해안선과 100년 이상된 해송이 주변에 자리잡고 있다. 물이 맑고 밀가루같은 백사장이 자랑이다. 해변의 액자포토존에서 재미난 사진을 남길 수 있고 서핑을 즐길 수 있다. 캠핑장은 이용 당일 현장 예약만 가능하다.

함께
가볼만한
곳 **남해양떼목장**



새하얀 양 떼와 함께하는 행복한 시간을 선사한다. 직접 양들에게 먹이를 주고 교감할 수 있으며, 안전하게 양들을 보호해주는 능률한 자태의 양몰이 견들도 만나볼 수 있다. 광활한 초원을 노니는 양 떼와 마주할 수 있는 산책로와 시원한 계곡은 천천히 둘러보면 좋다.

- 남해양떼목장 양마르뜨
- 남해상상양떼목장 편백숲
- 남해양떼목장 양모리학교



8

여기서 인생샷을 만나다.

섬이정원



남해의 독특하고 아름다운 층층 계단의 다량이 눈에 나무와 꽃을 심어 조성한 유럽식 정원으로 경남 민간 정원 제1호로 등록된 곳이다. 돌담과 연못, 나무와 꽃들은 프랑스의 작은 마을에 온 듯한 기분을 들게 한다. 층마다 다르게 펼쳐지는 경관과 푸르른 남해 바다가 보이는 이색적인 풍경 덕에 나만 알고 싶을 정도로 매력적인 곳이다. 9개의 작은 정원들이 방의 개념으로 분할돼 각 방마다 개성 있는 모습을 하고 있고 때로는 서로 어울려 색다른 경관을 보여준다. 사계절 다르게 각기 피어나는 꽃과 오솔길이 무척이나 아름답다. 카메라 프레임이 향하는 어떤 곳이든 인생샷으로 만들어준다.



함께
가들만한
곳

토피아랜드



전국 최초이자 유일한 토피어리 정원인 '토피아랜드'는 나무에 여러 형상을 자유자재로 표현한, 나무의 존재 자체로 힐링 모먼트를 안겨주는 완전한 초록의 숲이다. 경남 민간 정원 제3호로 등록되었으며 500여 그루가 군락을 이룬 편백나무 돌레길을 걸을 수 있고 족욕을 즐기며 남해의 지족 앞바다를 내려다보는 풍경 또한 일품이다.

9

남해여행의 시작과 끝

남해각



1975년 건립된 남해각은 44년간 남해대교를 보러 오는 관광객들을 맞이하는 숙박시설이자 휴게공간이었다. 우리나라 최초의 현수교를 전망할 수 있는 명소로, 신혼여행지와 수학여행지로 각광을 받았지만 시간이 지나며 그 쓰임새를 잃었다가 2021년 지역의 이야기를 발산하고 여행자들이 남해를 스케치할 수 있는 문화공간으로 다시 열렸다. 남해각은 남해대교와 남해각의 역사를 알 수 있는 것은 아카이빙 전시관, 특별한 관광 기념품과 혜택을 경험할 수 있는 관광플랫폼, 일상의 심을 제공하는 바다도서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남해여행의 시작과 끝에서 설렘을 제공한다.

함께
가들만한
곳

스페이스미조



옛 미조항 냉동창고를 복합문화공간으로 재생하였다. 남해와 미조 지역의 자원을 활용한 식음료, 음식을 즐길 수 있으며 공연장에서는 미조항의 바다를 배경으로 음악회 강연 등을 관람할 수 있다.

10

'엄마의 길' 남해 바래길 251km

남해바래길



500년 전부터 '꽃밭'이란 별칭으로 불렸던 아름다운 보물섬 남해. 남해바래길은 남해가 가진 천혜의 자연환경과 사람들을 두 발로 걸어 완벽하게 만나는 걷기여행길로 2024년 2월 기준, 총 거리 251km로 본선 16개, 지선 4개, 섬지선 2개, 마을테마 바래길 2개 코스가 있다. 본선 코스는 섬 전체를 연결하는 순환형 종주길이고, 지선 코스와 마을테마 바래길은 원점회귀가 가능한 단거리 순환형 걷기여행길이다. '바래'라는 말은 남해 어머니들이 가족의 먹거리 마련을 위해 바닷물이 빠지는 물때에 맞춰 갯벌에 나가 해산물을 손수 채취하는 작업을 일컫는 토속어이다.



함께
가볼만한
곳

앵강다숲마을



앵강만은 남해가 가둔 2개의 바다 중 남쪽으로 움푹 들어간 부분으로 발음도 귀여운 앵강은 누운 항아리를 닮아 그리 부르기도 하고 강처럼 잔잔한 바다에 이는 파도 소리가 피꼬리 울음을 닮아 부르기도 한다. 보석 같은 숲과 푸른 바다가 만난 보물 같은 마을. 특히 신전 숲 야생화 관광단지는 청정한 생태환경과 수려한 풍광으로 관광객들의 마음을 사로잡는다.



그 밖의 관광지



숲과 바다가 어우러진 물건방조어부림

2천여 그루의 방풍림으로 조성된 울창한 수림이 초승달 모양을 그리며 장관을 이루고 있는 곳으로 숲과 어우러진 몽돌 해안은 남해 바다의 정취가 물씬 풍기는 독특함을 자랑한다. 방조어부림은 바닷물이 넘치는 것을 막고 물고기 떼를 유인하는 역할을 한다.



산림 생태문화 공간 남해힐링숲타운

아이부터 어른까지 다양한 연령층이 함께 어우러져 산림휴양을 즐길 수 있는 곳으로 아름다운 숲길과 다양한 체험프로그램을 경험할 수 있는 산림 생태문화 공간이다.



휴양과 함께 예술을 즐길 수 있는 뮤지엄남해&아트스테이

폐교를 리모델링하여 재탄생한 복합 문화공간. 시각예술, 조형, 설치 등 다양한 장르의 전시를 개최하고 레지던스 작가들과 함께하는 지역연계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야외에는 가족 및 아이들을 위한 물놀이장과 오토캠핑장이 자리하고 있다.



추정수령 500년 된 창선 단향 왕후박나무

창선-삼천포대교에서 단향 방향으로 해변을 따라 달리다 보면 자연스레 눈길이 가는 곳이 있다. 무려 추정 수령 500년 왕후박나무로 멀리서 보면 마치 작은 동산으로 착각을 불러일으킬 정도로 그 위풍당당한 모습과 대자연의 힘에 숙연해짐을 느낀다. 어린왕자에게 바오밥나무가 있다면 남해엔 왕후박나무가 있다.



그 밖의 관광지

고사리 바다를 경험하는 여정
별해로

별해로는 고사리 바다를 경험하는 여정이란 뜻으로 남해 대표 임산물인 고사리를 테마로 하고 있다. 우리나라 최대의 고사리 산지인 창선면 가인리 일대의 이국적인 정취를 느낄 수 있는 별해로를 따라 올라가면 고사리 모양의 쉼터가 조성되어 있으며 고사리 언덕과 바다가 어우러진 아름다운 경관을 바라볼 수 있다.

말과 함께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는
보물섬 승마랜드

조선왕조 시기 전역이 목장으로 설치되었던 창선도에 조성된 공공 승마장. 쉽게 접하기 힘든 말들과 교감하며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다. 말과 하나 되어 원형 마장을 돌아보는 승마체험과 먹이주기 등을 전문 교관의 인솔, 교육하여 안전하게 즐길 수 있다.

추억의 향기로움이 피어나는
라키비움 남해

라키비움 남해는 따뜻한 차와 베이커리가 있는 복합문화공간이다. LP뮤지엄에는 MBC 경남에서 1968년부터 수집해 온 수만 장의 LP 1천장과 도서를 전시하고 있으며 다양한 미술품 및 아카이빙 기획 전시를 진행하고 있다.

원시 어업 형태의
지족 죽방렴

대나무 발을 조류가 흐르는 방향과 거꾸로 설치, V자로 벌려두는 원시 어업인 죽방렴은 시속 13km의 남해 바다의 빠른 유속을 이용한 포획방식이다. 죽방렴에서 잡은 멸치는 자연 그대로의 싱싱함이 살아 있어 전국 최상품으로 꼽힌다.

그 밖의 관광지

미니 자유의 여신상이 맞이하는
미국마을

남해에서 미국의 작은 마을을 만날 수 있다. 한국에 돌아와 노후생활을 보내고자 하는 재미교포를 위해 만들어진 마을로 미국식 목재구조 주택으로 구성되어 있다. 앵강만이 내려다보이는 마을 입구에는 메타세콰이어길이 조성되어 있다. 미국 전통주택을 체험하고 싶다면 이곳에 위치한 펜션을 이용해 보자.

탈의 모든 것
남해탈공연박물관

2008년 폐교된 단초 분교를 리모델링하여 조성한 곳으로 국내 연극계의 거목인 (故)김흥우 교수가 기증한 국내외에서 발간된 공연예술 관련 자료와 함께 세계 각국의 탈이 전시되어 있다. 주말에 수시로 공연과 영상 상영이 이루어진다.

파스텔 톤의 해질녘 풍경
사촌해수욕장

북적이는 것보다는 파스텔 톤의 해질녘 풍경을 바라보며 느린 여유를 갖고자 하는 연인들에게 더욱 인기가 많다. 야트막한 야산이 해안을 둘러싸고 있는 해변으로 해мп이 시작되면 호수 같은 바다는 온통 노을빛으로 물든다. 최근에는 차박과 반려동물 동반이 가능한 해수욕장으로 알려지고 있다.

다양한 볼거리, 먹거리가 가득한
남해 전통시장

청정 바다에서 잡아 올린 죽방멸치에서부터 전복, 왕새우, 실이 통통하게 오른 갈치, 남해의 차가운 해풍을 맞고 자란 남해마늘과 보물초(남해시금치), 창선고사리, 그리고 남해의 자랑인 남해유자와 보물섬한우까지. 여기에 신선한 회까지 바로 포장 가능하고 시장 안쪽에는 먹자골목이 형성되어 있다.

남해의 축제



5월

보물섬 미조항 멸치축제

남해의 나폴리라 불리는 미조항은 멸치를 비롯한 다양한 수산물의 집산지로 유명하다. 남해 멸치 맛이 가장 좋은 5월에 개최한다. 멸치 즉석 경매, 멸치 젓갈 담기 등의 체험을 할 수 있고, 하루 두 번 어부들의 멸치털이도 감상할 수 있다. 축제장 곳곳에서 멸치요리도 맛볼 수 있다.

6월

보물섬 마늘 & 한우축제

남해 대표 특산물인 보물섬 마늘과 한우를 만나볼 수 있는 축제. 해풍을 맞고 자라 알싸한 향이 좋은 남해 마늘과 청정 환경에서 정성으로 길러낸 남해 한우를 맛보고 즐길 수 있다.



10월

독일마을 맥주축제

세계 3대 축제인 독일 뮌헨의 옥토베르스트(Oktobefest)를 모태로 하여 2010년 가을부터 시작된 축제로, 파독 광부와 간호사가 정착한 이국적인 남해 독일마을에서 정통 독일 맥주와 소시지를 맛볼 수 있다. 독일마을 입구에서 광장 주무대까지 이어지는 퍼레이드를 비롯한 다양한 이벤트가 진행되며 빅텐트 안에서 펼쳐지는 흥겨운 공연과 함께 모든 참여자가 프로스트(건배)를 외치며 맥주를 즐긴다.



남해로 오는 길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생기지만, 남해는 섬이다. 육지에서 배를 타고 왔어야 했던 이곳에 다리가 생기면 오가기 쉬워졌고 바다로 둘러싸인 남해로 오는 길은 언제나 아름답고 평화롭다.



비행기편

사천공항과 여수공항이 각각 40분 거리에 있다. 공항에서부터 남해까지는 렌터카 혹은 카셰어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기차편

KTX와 SRT 등이 다니는 순천역과 진주역이 40분 거리에 있다. 각각 렌터카 혹은 카셰어서비스를 이용하면 남해에 쉽게 접근이 가능하며, 특히 진주에서는 남해로 오는 시외버스가 있다.

버스편

서울, 대전, 부산, 창원, 마산, 진주에서 시외버스를 타면 쉽게 남해로 올 수 있다. 시간은 조금 걸리지만 남해읍까지 바로 올 수 있고, 예쁜 풍경을 볼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





2024
지금 여기 **愛**
남해#



나를 찾는 특별한 공간, 남해
 남해가 남해라서 좋다.
 남해에 스며들다.
 남해에 여행을 담다.

